

지역 매 아리

부안, '달빛걷기축제' 구슬땀

제5회 고송도치شم 위도달빛걷기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연이은 불볕더위가 지속되자 위도면 민·관이 힘을 모아 대대적인 상사화 물주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오는 24~25일 제5회 고송도치شم 위도 상사화길 달빛걷기 축제와 10월 10일 10월의 날 행사를 앞두고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상사화 꽃씨 발아가 늦어지자 상사화 꽃 단지의 가뭄해소에 비상이 걸렸다.

의용소방대 회원 및 면지일등 10여명은 119소방차량을 동원해 위도 순환도로 14km와 위도해수욕장을 포함한 관내 주요 꽃동산에 물주기 작업을 펼쳐 대한민국 대표 힐링 섬 아름다운 위도 만들기에 비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뭄피해 해소에 적극 참여 다 같이 노력하는 아름다운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춘수 위도면장은 폭염과 가뭄여파로 상사화 꽃씨 발아가 늦어지면서 개화시기도 예년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여, 위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위도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4일 5회 고송도치شم 위도 상사화길 달빛걷기 축제와 제12회 곱소젓갈발효축제에 관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었다.

부안군청,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부안고객서비스센터 등이 참여한 이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는 축제장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축제 안전관리계획(안)에는 축제개요 및 시설물 관리자 임무와 관리 조직, 비상시 대응요령,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체계,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지역특색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짜여져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위도에서는 파장침하에서 해수욕장까지 상사화길 걷기행사 및 각종 축제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진서면에서는 것갈 담그기 체험, 추담 및 난타공연 등 각종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축제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녹지공간 물주기 확대

급수대상 노선 59km·급수차량 12대 등으로 확대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가로수 등 녹지공간 물주기를 확대했다.

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고사하는 가로수 등 수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물주기 작업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4개조 12명의 급수조를 12개조 27명으로 확대했고 관수 차량은 3대에서 12대로 크게 늘렸다.

급수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지난달까지는 빗꽃로 등 18km에 대해서만 급수했으나 약 59km로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외에도 14개소의 도시 숲과 단풍경관림(1,023본), 단풍생태공원 내 조경수와 다년생 꽃, 67개소의 꽃, 229개의 꽃박스, 다리 난간 화분(1,481개) 등 녹지공간 전반에 대한 급수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수세가 약한 나무와 성토다짐 사면에 식재한 나무, 가뭄 피해를 쉽게 받는 곳에 식재된 수목, 현재 가뭄피해가 발생한 수목 등에 집중적으로 급수하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물주기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고온과 강열한 태양열을 피해 새벽 시간에 관수를 통해 물주기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뭄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정읍신림조합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급수작업 확대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목과 초화류의 갈증

/정읍=김대환 기자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가로수 등 녹지공간 물주기를 확대했다.

"폐형광등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정읍시, 배출요령 안내

분리배출 동참 '당부'

정읍시가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가정과 사업장 내 방치된 폐형광등 100%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폐형광등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개당 평균 25mg 정도가 함유돼 파손 시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돼 인체에 신경장애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재활용하면 철, 아연과 니켈 등 유용한 금속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수은이 배출돼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

요하다"며 시민들의 세심한 분리배출을 당부하고 요령 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일반가정에서는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포장용 버섯사육사 무스나 동주민센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반주택지역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분리 배출 의무대상시설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자체 보관용기(장소)에 보관 후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에 위탁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내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접수

고창군이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재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거주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기준에는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가 없

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수급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생태곤충 체험학교'에 체험기간 동안 1000여명이 다녀갔다.

곤충 보고~체험하고~ 호기심 가득

고창군, 생태곤충 체험학교 성황리에 마쳐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군수 유기상)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생태곤충 체험학교'에 체험기간 동안 1000여명이 다녀갔다.

지난 14일 군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고창에 사는 곤충을 만나다'를 주제로 '곤충표본 액자만들기', 'AR·VR 영상 만들기' 등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5월 개관한 이후 고창 생태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관리센터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정보를 AR·VR영상 및 전자방명록·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로 남겨놓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으며, 이밖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30여

종의 다양한 곤충과 생물들로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운영한 '생태곤충 체험학교'는 전시관 입장객의 추가 비용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갯벌 체험축제 등 올 여름 고창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생물권보전사업소 관계자는 "생태곤충 체험학교를 통해 고창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관리센터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의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알리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내달 1일 다문화 축제 개최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하 시립중앙도서관)이 내달 1회 다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시립중앙도서관 인근 상동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는 '도서관이 떠나면 세계문화여행'으로,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도서관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8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축제다"고 밝혔다. 다문화사회를 맞아 각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해소함을 물론 이를 지역 화합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축제에서는 베트남 반미센드위치 등 아시아 음식 만들기과 세계문화 아코디언북 만들기 등 어린이 놀이감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아시아 음식 만들기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계문화 아코디언북 만들기는 당일 현장에서 접수한다.

시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자녀와 부모 등 온가족이 참여하여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유쾌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he ad includes the text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